

독일어권 민속학의 일상학화

그 경위와 의의를 중심으로

오이카와 쇼헤이 · 크리스찬 게랏

번역: 김 현정

들어가는 말

최근 일본에서의 독일어권 민속학에 대한 관심은 현대문화연구로의 전개, 특히 그 연구를 가능하게 한 ‘일상’(Alltag)이라는 개념에 향해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이기도 한 민속학자 스스로가 ‘지금 여기’를 연구대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크리스찬 게랏과 오이카와 쇼헤이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자료 분석을 통해 독일어권에서의 ‘일상’ 개념의 수용을 ‘일상학’화로 이해하고 그 상황의 일부를 보고하고자 한다. 또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일본 민속학이 ‘일상’을 핵심 개념으로 수용할 경우, 어떤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독일어권 민속학에서 ‘일상’ 개념의 역사

이미 이상현과 후샤오후이(戸曉輝) 등이 지적한 것처럼 독일어권 민속학에서 쓰이는 ‘일상’ 개념은 민속학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에드문트 훗설 및 알프레드 슈츠의 현상학, 특히 생활세계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이상현, 2013; 戸曉輝, 2014]. 또 앙리 르페브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학파도 존재한다.

이러한 ‘일상’ 개념은 양쪽 모두 1969년 팔켄슈타인 회의 이후에 민속학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도입되었다. 다만 1978년 『민속학 개론』(Grundzüge der Volkskunde)에서 우츠 예글레(Utz Jeggle)는 민속학은 이미 ‘일상’으로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속학의 역사 전개가 민속학을 ‘일상’으로부터 괴리시켰다고 주장하였다[Jeggle, 1978: 85]. 따라서 독일어권 민속학에서 ‘일상학’화는 새로운 전개이기도 하면서 민속학적 학문의 방향성을 되돌리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독일어권 민속학에서 ‘일상’ 개념은 혁신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학문의 기초를 표현하는 개념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후술하는 콘라트 코스틀린(Konrad Köstlin)은 개념으로서의 ‘일상’을 장시간 연소되는 스토브(즉, 장기적인 현상)에 비유하며 ‘민속문화’(Volkskultur)를 대신해 ‘일상’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Köstlin, 2006: 19]. 물론 대상의 치환에 지나지 않는 용법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은 학문 그 자체의 성질과 연관된 개념으로서 기대를 모았으며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칼라 립(Calora Lipp)에 따르면 독일어권 민속학에서 ‘일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인 단행본은 1978년에 이나 마리아 그레베루스(Ina-Maria Greverus)가 펴낸 『문화와 일상세계』(Kultur und Alltagswelt)이다. 이에 앞서 그레베루스는 1976년에 『문화와 일상세계에 대하여』(Über Kultur und Alltagswelt)를 『민속학 잡지』(Zeitschrift für Volkskunde)에 투고하였다. 이전에 ‘일상’ 혹은 이와 비슷한 단어가 쓰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1970년대 후반은 일상이 개념으로서 자각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가 되면 ‘일상’의 사용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이미 지적했듯이 1970년대의 ‘일상’에 대한 주목은 민속학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학제적인 조류였다. 알프레드 슈츠가 현상학적 사회학을 구상한 것은 1950년대였지만, 그가 주목받았던 것은 버거와 루크만의 『실재의 사회적 구성』을 통해서였다. 『실재의 사회적 구성』[버거 / 루크만, 2003]은 1966년에 미국에서 간행되었고 1969년에 독일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한편 슈츠의 글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은 1975년이었다. 또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은 1946년과 57년에 간행되었으나 독일어로 번역된 것은 1975년이었다[Lipp 1993: 3~4].

팔켄슈타인 대회 이후의 민속학 개혁의 시기와 독일어권에서의 학제적인 ‘일상’에 대한 관심이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시기에 독일어권 민속학은 사회학적 연구에 가까워져 갔다. 다만 ‘일상’이 사회학으로 접근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예글레에 따르면 사회학과 민속학을 이어주는 단서가 된 것이 ‘일상 연구’였다. 또 민속학 내부에서도 괴리되고 있었던 역사학적 연구와 현대학적 연구를 이어준 것도 ‘일상 연구’였다[Jeggel, 1978: 86]. 다양한 민속학적 연구를 통합함과 동시에 인접 분야와의 재접속을 가능하게 한 개념으로서 ‘일상’은 주목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팔켄슈타인 대회 이후의 대학 학과 개혁에서 ‘일상’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일상’ 개념을 중시한 학과는 그레베루스가 몸 담은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헤르만 바우징거(Hermann Bausinger) 및 예글레가 있었던 튀빙겐 대학이었다. 이하에서는 그레베루스와 예글레의 ‘일상’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그레베루스는 민속학을 ‘유럽인의 하루하루의 생활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문화란 ‘삶의 방법’(Mittel der Existenzbewältigung)이라고 정의하였다. 처음에 그레베루스는 ‘문화 분석’을 ‘일상’ 연구라고 하는 등, 문화와 ‘일상’을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한 듯한 흔적도 보이지만[Greverus, 1976], 이후에는 ‘일상’을 문화와 대비시켜 이해하였다. 그레베루스에 따르면 ‘일상’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Kulturindustrie)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이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화’이다. 그녀의 테마는 ‘일상세계’(Alltagswelt)의 경험 가능성, 즉 사람들이 ‘일상세계’를 어떻게 납득하고 수용하는가, 다시 말해 인간과 ‘일상세계’의 상호관련성을 찾는 데 있었다. 그레베루스는 당시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던 사회학적 ‘일상’ 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일상’을 다른 문화로부터 구별할 수 있다는 생각”(Sondersphäre des Alltäglichen)과 “모든 것이 ‘일상’이라는 생각”(Universalisierung des Alltagsbegriffs)을 부정하였다[Greverus, 1983: 11].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팔켄슈타인 대회에서도 ‘하층민들의 일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으로서 민속학을 구상하는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레베루스가 말하는 ‘일상’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이지, ‘흔하고’ ‘당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튀빙겐 대학과는 ‘일상’을 문화산업이 생산하는 것이 아닌 문화산업에 의해 소외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예글레는 민속학사 속에서 ‘일상’ 연구의 개척자를 찾고자 했으며 칼 바인홀트(Karl

Weinhold)에 의한 1890년의 의식주 연구를 참고로 하여 유형성을 중시하는 문화관을 형성해왔다. 그가 속한 튀빙겐 대학에서의 ‘일상’ 연구 또한 유형의 것을 중심에 두었고 간주관적으로 구축되는 생활세계의 규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예글레는 훗설, 슈츠, 르페브르의 ‘일상’론과 민속학의 관계에 대해 “커다란 관계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적인 문화화(필자 주: 민속학)에서 사용가능한 일상 개념을 만들어내는 일이다”[Jeggel, 1978: 83]라고 주의 깊게 지적한 바 있다. 인접분야와 같은 조류 속에 있었지만, 유행하던 이론의 적용이 아니라 민속학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예글레 이후, 이러한 방향성은 예를 들어 노동자 문화나 사회 계급을 테마로 한 연구로 발전해갔다. 알브레히트 레만(Albrecht Lehmann)의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그러했다. 또 튀빙겐 대학은 1970년대까지 미디어 연구의 거점으로서 우세했지만 [베히도르프, 2011], 이후 역사적인 주제가 강세를 보였다.

‘일상’에 대한 관심이 독일 민속학에 가져온 것은 ‘인간’의 중심화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창조성, 사람들의 사회화, 문화화 등으로 관심은 확대되었다. 물론 독일어권 민속학 스스로도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기규정을 해왔으나 사람은 문화의 보지자로서의 측면에서만 연구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일상’ 개념은 여기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예를 들어 종래의 물질문화연구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상학’적인 물질문화연구는 그 물건이 개인 또는 개인의 인생이나 생활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Lipp, 1993: 12~14]. 립에 따르면 “수 백 개의 수납상자, 캐비닛, 장롱을 조사해도 ‘일상’을 규명할 수는 없”[Lipp, 1993: 13~14]는 것이며 이는 종래 연구방법과 ‘일상학’적 연구방법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사람에 대한 주목은 자서전의 분석과 같은 방법을 낳았으며 조사 중 연구자의 역할을 반성적으로 분석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는 비단 민속학만의 흐름이 아니라 사회학·역사학과도 연동되어 있다. 1980년대 전반의 역사학에 등장한 구술사 연구의 인기 등이 그러하며 민속학·역사학에서는 ‘인류학적 방법’이라고 칭한 에릭 시점을 중시한 민족지적 방법론이 쓰이게 되었다. 참고로 1980년대에는 민속학을 배우는 학생 수가 증가한 시기이기도 했다. 립에 의하면 여기에는 동시대의 자본화 비평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이 그 배경에 있었다[Lipp, 1993: 12]. 민속학의 ‘일상학’화는 고색창연한 민속학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학으로서의 재생에 공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변화는 일반 사회로부터의 관심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와 같은 학제적 흐름을 탄 민속학의 ‘일상학’화의 과정은 반드시 평화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립의 1993년 논문 ‘민속학·사회학·역사학의 경계 영역에서의 일상문화 연구’(Alltagskulturforschung im Grenzbereich von Volkskunde, Soziologie und Geschichte)는 독일어권 민속학의 ‘일상’ 개념에 대한 연구의 기초문헌으로 자주 거론되는데, 민속학의 일상문화 연구를 학사적 맥락 및 인접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정리한 글이다. 브리기타 슈미트 라우버(Brigitta Schmidt-Lauber)에 따르면 립의 논문은 ‘일상’을 둘러싸고 인접학문 분야 속에서 민속학이 당시 놓여있던 상황, 특히 민속학자들이 느끼고 있던 역사학에 대한 위기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Schmidt-Lauber, 2010: 47]. 역사학의 ‘일상학’화가 민속학에 위기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립의 논문은 이러한 무거운 논의 속에서 집필된 것이기도 했다.

‘일상’ 개념의 도입이 독일어권 민속학에 가져온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논의의 학제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민속학의 ‘일상학’화는 사회학과 역사학으로의 접근, 그리고 인류학적 방법의 도입을 가져왔다. 한편 민속학 내부에서의 역할은 과거지향적인 연구와 현재지향적인 연구 사이의 가교 역할, 또는 양쪽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기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도 슈미트 라우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Schmidt-Lauber, 2010: 56].

역사 연구와 현대 연구, 혹은 공시적 문화 분석과 통시적 문화 분석을 이어줄 수 있는 ‘꺾쇠(Klammer)가 존재한다면 ‘일상’이 바로 그중 하나이다. 아니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다. 민속학적 ‘일상’ 연구는 현대를 대상으로 하건 과거를 대상으로 하건 미시적 분석과 해석학적 접근, 또 대부분의 경우 주체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수반한다.

위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어권 민속학이 지금도 “꺾쇠”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합이 여전히 학문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일상학’화가 일반 사회에서의 독일어권 민속학의 위치를 호전시켰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 슈미트 라우버 또한 이전에는 “민속학자라고 하면 지극히 동정적인 미소를 띄우거나 남몰래 서로 공감을 표하는 듯한 반응이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일상학’으로서 (또는 문화학으로서) 사회로부터 인지되어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Schmidt-Lauber, 2010: 53]. 이렇게 볼 때 ‘일상학’화가 민속학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일상’ 개념이 독일어권 민속학에 도입된 경위와 그 결과로서의 변화를 개관해 보았다. 다음으로 ‘일상’이 분석적 연구관점으로서 지니는 의의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방법으로서의 ‘일상’

앞에서 지적한 그레베루스와 예글레의 ‘일상’관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일어권에서도 ‘일상’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 통일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단순히 연구대상을 ‘일상’이라 칭하기도 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일상’에 주목하는 경향도 있다. 게다가 후자의 ‘일상’ 개념도 “보통의, 이른바 평범한, 평균적인 생활세계”라는 정도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Schmidt-Lauber, 2010: 50~51]. 단, 민속학자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음으로써 ‘일상’이 오히려 ‘일상’이 되지 않는 국면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일상’의 소멸이 민속학 연구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콘라트 쾨스틀린의 오스트리아 민속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대회 논문집에 수록된 ‘유럽 민족학 테마로서의 일상’을 실마리로 삼아 ‘일상’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Köstlin, 2006].¹⁾

쾨스틀린에 따르면 ‘일상’의 특징은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당연’(selbstverständlich)하다는 것은 문제시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쾨스틀린은 ‘일상’이 대상화된다면 그것은 ‘당연성’(Selbstverständlichkeit)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쾨스틀린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민속학은 일관되게 ‘당연성’의 ‘상실’을 존립 기반으로 삼아왔다는 지적이다. 전통적인 민속학은 ‘당연성’을 잃어버린 ‘일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소멸, 쇠퇴, 해체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가시화할 수 있었고 이것이 민속문화나 역사적 공동체라 불리면서 향수의 대상이 되거나 지역적인 ‘특색’을 낳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애국심·애향심의 실마리로 상징화되었다. 이 지적은 일본 민속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의 현지조사를 염두에 두고 말한다면 생활인으로서의 연구자에게 있어 ‘당연성’이 희박한 생활사상(生活事象)이 조사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제보자에게 있어도 ‘당연성’이 후퇴된 과거의 일이어야 인터뷰 조사에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쉽다.

쾨스틀린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사회·문화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단편화·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성’은 소실되기 쉽다. 즉 인식이 어렵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일상’이 쉽게 ‘당연성’을 잃어버리고 가시화되기 쉬운 사회인 것이다. 슈미트 라우버도 “반복되는 실천으로서의 일상이 소멸하고 있다”며

현대사회의 특징을 지적한 바 있다[Schmidt-Lauber, 2010: 50~51]. 누군가의 ‘당연’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10년 전의 일상적 삶이 오늘날의 일상적 삶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사실은 누구나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단편화될수록 개인이나 집단은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스스로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어떤 가구를 사용하는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선택지들 중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알력을 낳기도 한다. 자신의 고유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풍조가 이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고유하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당사자에게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도 없겠다. 과거 ‘당연’했던 것이 특별·독특한 것이 되어 타자와의 구별에 동원되기도 한다.

콤포스틀린은 자매도시인 너르틀링겐(독일)과 드로젠도르프(오스트리아)의 관계를 사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두 도시 모두 성곽도시이다. 성곽에 둘러싸여 생활을 영위했다는 과거의 ‘당연’한 삶이 도시의 특징으로 인식되고 이를 공유하는 다른 도시와의 교류로까지 이어졌다. 즉, 다른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당연’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기억의 숭배’(Erinnerungskulte)라고도 부를 수 있는 현상 또한 ‘일상’의 사회자원화의 적절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부어스트쨴멜(Wurstsemmel)이라는 오스트리아의 흔한 샌드위치가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은 것처럼 일상적인 것이 국가나 지역의 상징으로 강조되는 일도 있다. 즉, ‘일상’으로부터 떼어내진 사물과 현상이 국사의 일부분으로 다시 읽혀지거나 개개인의 역사나 국사와 접합되기도 한다[Köstlin, 2006: 27]. 일본 민속학에서도 ‘지역성’의 규명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었다. 또 근대 이후에 나타난 국가문화의 창출·재래문화의 동원과 같은 현상도 일본 민속학의 친근한 테마였다.

‘당연’상의 상실이 민속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모든 문화가 ‘당연’성을 쉽게 잃어버리는 현대사회는 지극히 풍요로운 필드라고 할 수 있겠다. 민속학의 연구 실천은 ‘당연’함의 비가시성을 가시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반복하지만, ‘일상’이란 주목받는 바로 그 순간에 비가시적인 것에서 기술해야만 하는 ‘특별한 것’으로 바뀐다. 콤포스틀린은 이를 ‘일상’이 ‘문화’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Köstlin, 2006: 24], 이는 독일어권 민속학의 자기상(自己像)이 문화학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어쨌든 ‘일상’의 의식 이전의 현실 혹은 그러한 감각의 방식이라면 대상으로서의 ‘일상’은 주제화의 가능성을 내포하였지만 아직 주제화되지 않은 영역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을 묻는 연구 실천은 연구자의 인식 가능성의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은 그러한 의미에서 ‘미지의 대륙’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함부르크 대학 2011년 겨울학기 자비네 키에니츠, 소냐 빈트뮐러 담당 강의 ‘민속학·문화인류학으로의 도입’에서 배포자료 ‘개념과 이론: 일상’에서 인용. 자세한 내용은 [及川, 2014]를 참조할 것). 민속학자는 ‘생활자’로서 자문화 연구의 현지 조사를 수행해왔다. 일상학으로서의 민속학에서는 많은 민속학자들이 힘들게 라포르(rapport)를 형성한 후 조사할 수 있었던 지역사회와 똑같이 현재의 ‘지금 여기’도 같은 조사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상’을 이해한 콤포스틀린은 ‘당연’성의 구조와 ‘당연’성이 소멸되는 과정을 밝히는 일을 민속학의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당연’해지는 과정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콤포스틀린은 민속학의 ‘역사학성’을 중시한다. 물론 독일어권 민속학은 현대사회의 도시 공간과 과학기술세계를 주요한 필드로 삼는다. 그러나 민속학이 현대사회의 도시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옛 것을 연구’해왔던 학문의 내력 때문이라고 콤포스틀린은 지적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재가 생활 연구를 담당해온 민속학에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현대민속학’은 ‘현대’ 민속학이기 때문에, 즉 ‘현대’라는 시간적 시점을 다른 민속학적 방법

론과의 변별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적이어서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전근대를 연구하지 않는 것’이나 사회학, 문화인류학과 친화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단순히 ‘현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면 개념에 대한 사유가 결여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이미 고노 신(河野眞)은 최근 일본 민속학에서의 ‘현대’ 붐에 대해 위화감을 표명하며 민속학자들이 말하는 ‘현대’의 내실에 의문을 던진 바 있다[河野, 2014]. ‘현대’를 분석 틀로 삼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3. 일본 민속학과 ‘일상학’

여기에서는 일본 민속학이 ‘일상학’화를 지향할 경우, 또는 민속학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일상학’적 연구 시점을 의식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일상’이라는 개념의 무계획적인 사용은 비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학문의 대상을 단순히 ‘일상’과 치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러하다. ‘일상’은 막연히 연구대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민속학이 어떠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선택되는 방법론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상학’은 소박하게 현대학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글레, 콕스틀린, 립, 슈미트 라우버와 같은 ‘일상’론 연구자들은 모두 역사학적 연구를 중시하면서 ‘일상학’을 구상하고 있다. 슈미트 라우버는 민속학이 현대문화 연구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민속학의 자기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경험적 문화학’의 ‘경험’(Empirie)이라는 개념이 현대의 문화분석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였다[Schmidt-Lauber, 2010: 55]. 상술한 바와 같이 ‘일상’에는 ‘꺾쇠’로서의 기능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일상’ 개념을 정밀한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독일어권에서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여겨진 분단을 재생산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일상학’은 민속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지조사’나 ‘민속지’라는 방법은 물론 ‘문화’, ‘민속’이라는 개념조차도 민속학을 다른 분야와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지 못한다[Schmidt-Lauber, 2010: 57]. 하나의 대상, 하나의 방법에 학문의 정체성을 거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접분야와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문의 윤곽을 조금이라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당해 학문이 축적해온 역사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민속학도 기존의 역사적 맥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향토 연구, 자성의 학문이라 자칭하며 장래의 세계적 통합을 구상하고 자문화 연구의 학문으로서 연구 성과를 축적해온 민속학의 내력은 큰 의미를 갖는다. 민속학이 자문화 연구의 학문으로 규정된 것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이유와 함께 각자의 생활의 ‘당연성’이 급속히 흔들린 체형 속에서였으며, 보다 나은 생활에 장애가 되는 ‘당연성’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전략에 기인한다[室井, 2010]. 일본 민속학이 ‘일상학’의 일부가 되기 위해 기존의 민속학 연구의 역사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다시금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생활자로서의 연구자의 ‘당연성’ 또한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관찰과 인터뷰를 주된 방법으로 삼는 민속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도구는 ‘자기’ 자신이 라는 점을 전제로 말하자면[Schmidt-Lauber, 2007], 사회의 다양화는 각 연구자가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도 다양성을 가져온다. 하루하루의 흐름 속에서 ‘다양성’이 어떻게 흔들리고 무엇이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 부상하는가의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이미 일본사회의 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도 세대간의 현실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新谷, 2009: 71]. 같은 세대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생활 경험의 상이함에 따라 자명하다고 여기는 것들

은 달라진다. 민속학의 조사론에서 연구자의 신체가 자료에 함수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에 지적된 바 있는데, 이는 조사·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기보다는 생활자로서의 ‘자신’을 방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독일어권 민속학의 ‘일상학’화의 경위와 의의에 대해 정리한 후 일본 민속학과 연관지으며 고찰해보았다. 민속학이 자문화를 연구대상화한 것은 사회의 ‘당연성’의 동태와 연동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연성’의 동태가 속도를 높이고 ‘당연’한 것이 다양화·세분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생활은 민속학에 적지 않은 주제를 제공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필드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상학’은 민속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의 학문들 중에서도 민속학이야말로 한없이 ‘일상학’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일상학’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注

- | | |
|---|---|
| 1 개념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 틀의 선택은 연구 작업의 한 과정임은 |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글에서는 관점의 선택을 ‘방법’이라고 이해하며 민속학에 있어서의 ‘일상학’이란 이러한 의미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李相賢, 2015, 『ドイツ民俗学と日常研究—ドイツチュービンゲン大学民俗学研究所の村についての日常研究を中心に』, 『日常と文化』 1号.
- 及川祥平, 2014, 『ハンブルク大学民俗学 / 文化人類学研究所における民俗学教育について』, 『常民文化』 37号.
- 河野眞, 2014, 『民俗学のかたち—ドイツ語圏の学史に探る』, 創土社.
- 新谷尚紀, 2009, 『いくつもの民俗学のなかで、いまあらためて柳田國男の民俗学に学ぶ意義、その実践』, 上杉富之・及川祥平編, 『歴史としての人類学・民族学・民俗学』, 成城大学民俗学研究所.
- バーガー, ビーター・L / ルックマン, 토마스, 2003, 『現実の社会的構成』(山口節郎訳), 新曜社.
- 戸曉輝, 2015, 『民俗学における『生活世界』概念の『当たり前』についての再考』(西村真志葉訳), 『日常と文化』 1号.
- ベヒドルフ, 우테, 2015, 『ドイツ語圏における民俗学的・文化科学的メディア研究の方法—映画とテレビ』(及川祥平, 크리스찬·게라트訳), 『常民文化』 38号.
- 室井泰成, 2010, 『柳田國男の民俗学構想』, 森話社.
- Greverus, Ina-Maria, 1976, “Über Kultur und Alltagswelt,” *Ethnologia Europaea* IX: 199~211.
- Greverus, Ina-Maria, 1983, “Alltag oder Alltagswelt: Problemfeld oder Spekulation im Wissenschaftsbetrieb,” *Zeitschrift für Volkskunde* 79: 1~14.
- Jeggle, Utz, 1978, “Alltag.” In *Grundzüge der Volkskunde*, herausgegeben von Hermann Bausinger, Utz Jeggle, Gottfried Korff, und Martin Scharfe, 81~126.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Köstlin, Konrad, 2006, “Der Alltag als Thema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In *Alltagskulturen. Forschungen und Dokumentationen zu österreichischen Alltagen seit 1945. Referate der Österreichischen Volkskundetagung 2004 in Sankt Pölten*, herausgegeben von Olaf Bockhorn, Margot Schindler, und Christian Stadelmann, 19~33. Wien: Selbstverlag des Vereins für Volkskunde.
- Lipp, Carola, 1993, “Alltagskulturforchung im Grenzbereich von Volkskunde, Soziologie und Geschichte. Aufstieg und Niedergang eines interdisziplinären Forschungskonzepts,” *Zeitschrift für Volkskunde* 89: 1~33.

- Schmidt-Lauber, Brigitta 2007. "Feldforschung: Kulturanalyse durch teilnehmende Beobachtung." In *Methoden der Volkskunde – Positionen, Quellen, Arbeitsweisen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herausgegeben von Albrecht Lehmann und Silke Götsch, 2., über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219~248. Berlin: Reimer.
- Schmidt-Lauber, Brigitta, 2010, "Der Alltag und die Alltagskulturwissenschaft. Einige Gedanken über einen Begriff und ein Fach." In *Alltag als Politik – Politik im Alltag. Dimensionen des Politischen in Vergangenheit und Gegenwart. Ein Lesebuch für Carola Lipp*, herausgegeben Michaela Fenske, 45~61. Studien zur Kulturanthropologie/Europäischen Ethnologie 5. Münster: Lit.